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봉암저수지서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개

✎ 이형권(=호남) 기자 | ⓒ 승인 2025.09.29 14:20

깨끗한 농어촌 환경 조성...지역 주민·농민·공공기관 함께 참여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실시.[사진제공=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29일 진도군 지산면 봉암저수지 일원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공사의 ESG 경영 실천과 깨끗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도지사 직원과 지산면사무소 관계자, 인근 농민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영농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받은 뒤, 저수지 주변에 방치된 농업 폐비닐과 생활쓰레기, 낚시객이 버린 각종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최진 지사장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행정·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형권(=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